

초기국학운동시기 근대국어학연구에 대한 리해

김영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민족문화유산을 연구하여 반동적인것은 버리고 진보적인것은 오늘의 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켜야 합니다.》

(《김일성전집》 제18권 158페이지)

국학이란 자기 나라의 력사, 국어 등을 연구하는 민족고유의 학문을 말한다.

19세기 70~80년대에 시작되어 90년대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던 국학연구는 우리나라의 력사와 말과 글을 옹호고수하고 발전시키며 인민들속에 강렬한 민족의식을 심어줄것을 목적으로 하는 애국적학술연구, 대중계몽운동으로 되었다. 이 시기 국학운동을 그후의 국학운동과 구별하여 초기국학운동이라고 한다.

초기국학운동이 발단되고 본격화되었던 시기는 유미자본주의렬강의 침략이 점차로 골화되고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이 강화됨으로써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될 위험이 커지고 민족의 운명이 경각에 처한 시기였다. 이러한 정세로부터 애국적지식인들 앞에는 광범한 인민들속에 열렬한 애국정신, 강렬한 민족의식을 심어주어 그들을 나라의 독립을 고수하고 근대적발전을 이룩하는데 적극 불려일으킬데 대한 절박한 시대적과제가 제기되고있었다.

이 시기 애국적지식인들은 시대적사명감으로부터 우리나라의 력사연구에 힘을 넣었다. 그들이 력사연구와 그 저술에 큰 힘을 넣은것은 우리나라의 력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국권회복을 위한 《정신적자강》의 실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관점에 기초한것이였다.

그들은 국권회복과 나라의 근대적발전을 담보하는 《자강》의 근본조건이 2천만 우리 동포들속에 《국혼》 즉 《국가사상》, 《민족정

신》을 심어주는데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배양하는 주요수단이 국학의 진흥에 있다고 하였다. 그가운데서도 민족사, 우리 나라 력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인정하였다.

뿐만아니라 《국가사상》, 《민족정신》을 배양하는데서 민족어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 연구를 심화시키는것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였다.

주시경을 비롯한 애국적학자들은 언어를 민족의 존망과 관련되는 중요한 표징으로 본데로부터 민족어를 지키고 살려나가기 위한 학문연구에 힘을 넣었으며 이 과정에 근대국어학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초기국학운동시기 근대국어학연구에 대한 리해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국문을 인정하고 우선시하며 국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활동이 진행된것이다.

이 시기 애국적지식인들은 공식적인 서사생활에서 한문이 아니라 국문을 쓸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로부터 1896년 조선봉건왕조는 국한문혼용에 대한 법령을 공포하였다. 이것은 한문과 함께 국문을 섞어 쓸데 대하여 강조한것으로서 비록 불완전한 것이기는 하지만 국문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것이였다고 할수 있다.

국문에 대한 인식이 새로와짐에 따라 근대적방법론에 기초하여 우리 말과 글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도 취해졌다.

리봉운은 《국문정리》(1897)에서 처음으로 우리 말에 대한 과학적연구를 시도하였으며 지석영은 우리 글자의 규범과 관련한 자기 견해를 담은 《신정국문》(1905)을 내놓았다. 1907년 7월 8일에는 국문의 연혁과 그 사용과 관련한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자문기관으로서 학부안에 국문연구소가 설립

되었다.

국문연구소의 목적은 훈민정음에 대한 과학적연구를 진행하여 국문에 의한 문자생활의 합리적인 방도를 모색하는데 있었다.

언어를 《국성》으로 인식하고있었던 주시경은 우리 나라 최초의 국문신문인 《독립신문》에서 기자생활을 하면서 《국문동식회》, 《상동청년학원》에서 우리 말 문법교육을 스스로 담당하여 많은 제자들을 키워냈다. 그리고 1907년에 론설 《국어와 국문의 필요》를 발표한데 이어 《국어문전음학》(1908), 《국어문법》(1910), 《말의 소리》(1914)를 편이어 발표함으로써 근대국어학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추적역할을 하였다.

지석영은 《언문》(1905)을 냈으며 김규식은 《대한문법》(1906~1908)을 집필하여 등사본으로 찍어냄으로써 여러 학교들에서 교재로 리용하게 하였다. 이와 함께 최광옥과 유길준의 《대한문전》이 1908년과 1909년에 황해도 안악과 서울에서 각각 출판되고 김희상의 《초등국어어전》(1909)이 출판되어 많은 학교들에서 문법교과서로 널리 쓰이였다.

초기국학운동시기 근대국어학연구에 대한 리해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근대적방법에 기초한 전면적인 국어연구활동이 진행됨으로써 국어학의 기초가 마련된것이다.

주시경의 《국어문전음학》, 《국어문법》을 비롯하여 유길준, 최광옥의 《대한문전》, 김규식의 《대한문법》, 김희상의 《초등국어어전》 등은 초기국학운동시기 국어학연구의 성과를 반영하고있는것으로서 지난 시기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근대적인 방법에 의하여 국어학의 기초를 닦아놓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선 근대언어학의 연구방법에 기초하여 문자와 어음을 구별하고 어음의 최소단위를 정하였다.

주시경은 《국어문전음학》에서 자연음은 《무별성》, 언어에 쓰이는것은 《유별성》이라

고 하면서 유별성에는 자음과 모음의 구별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낼수 있는 음을 모음이라고 하고 모음에 붙어서 내는 음을 자음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가》의 경우에 《ㄱ》은 《ㄱ》이 없어도 스스로 발음할수 있기때문에 모음이며 반면에 《ㄱ》은 《ㄱ》이 없이는 발음할수 없기때문에 자음이라고 하였다.

김규식의 《대한문법》과 김희상의 《초등국어어전》에서도 어음을 모음과 자음으로 분류하였다.

이것은 종래에 전통적으로 사용하여온 초, 중, 종성의 분류를 근대어음리론의 견지에서 재분석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그런데 유길준의 《대한문전》에서는 문자를 《모음, 부음, 자음》으로 나누면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등을 부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등은 모음, 부음과 모음이 합쳐진 《가, 러, 모, 수, 즈, 히》 등을 자음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어음분류는 최광옥의 《대한문전》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었는데 하나의 음절에 대해서 자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견해는 어음의 최소단위를 분류하는 원칙에 어긋나기때문에 그후에는 더 논의되지 않았다. 반면에 주시경의 《국어문전음학》에서 명명한 모음, 자음의 분류는 어음의 최소단위의 이름으로서는 더 합리적인것으로 하여 그후에도 계속 쓰이였다.

또한 근대언어학의 연구방법에 기초하여 국어의 문법구조를 설명하였다.

이 시기 국어의 문법구조를 크게 두개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그 명칭은 서로 같지 않았다.

주시경은 《국어문법》에서 문법구조에 대하여 《기난갈》, 《짬듬갈》로 나누었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기》는 단어를 의미하는것으로서 《기난갈》은 단어를 품사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는 오늘날의 품사론과 형태론을 말하며 《짬듬갈》이란 《기》가 어떻게 결합되어서 각종의 언어적단위가 이루어지는

가를 설명하는것으로서 오늘의 단어결합론과 문장론을 가리키는것으로 된다.

유길준과 최광옥의 《대한문전》에서는 언어론과 문장론으로 나누고 언어론에서는 품사를 분류하고 품사별로 그 종류와 형태변화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문장론에서는 문장성분과 그 배열, 문장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김규식의 《대한문법》에서는 《사자학》을 설정하고 그것을 다시 《품사학》과 《변사법》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는데 《품사학》은 품사분류와 매개 품사들의 종류에 대한것이고 《변사법》은 각 품사들의 형태변화에 대한것이였다.

김희상의 《초등국어어전》은 제2권과 제3권이 문법에 대한 서술부분인데 제2권에서는 품사별로 그 쓰기와 만들기를, 제3권에서는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을 단위로 하여 그 쓰임을 설명하고있다.

이처럼 이 시기 문법서들에서 국어의 문법구조를 해설하는데서는 각각 자기의 특징을 가지고있으나 공통적인것은 단어를 여러 품사들로 분류한것이며 단어들의 결합을 형태론과 문장론으로 나누어 서술한것이다. 이것은 이 시기 국어학연구가 근대화의 길로 나아가고있었음을 보여주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또한 근대언어학의 연구방법에 기초하여 품사를 분류하였다.

이 시기 품사분류에서 공통적인것은 명사(임), 대명사(언), 동사(움), 감탄사(놀)의 설정이며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형용사(엇, 언), 부사(억)의 설정을 들수 있다.

품사분류에서 의의를 가지는것은 첫째로, 조동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것이다.

유길준의 《대한문전》에서는 《동사의 활용을 조하야 기 의의를 완성하는 어》라고 하면서 조동사를 따로 설정하고 그 용법에 따라서 《기절을 생하며 계단을 성하며 의사를 표한다.》고 하고 그 실례로 《아, 어, 오》 등을 들었다. 여기서 기절이란 현재, 과거, 미

래의 시칭법주라고 할수 있다. 그리고 계단은 《합속단, 련속단, 중지단, 종결단》으로 구성하였는데 합속단은 시태토를, 련속단과 중지단은 동사의 접속형을, 종결단은 동사의 종결형을 가리키는것이라고 볼수 있다. 결국 동사를 《기절, 계단, 의사》에 따라 조동사가 첨가되어 다양한 형태변화를 하게 되는것으로 설명하면서 조동사를 하나의 품사로 보았다.

최광옥의 《대한문전》에서는 조동사를 동사의 일종으로 보고 다른 품사로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조동사의 기능을 설명하는데서는 유길준의 경우와 다름이 없었다.

그리고 최광옥의 문법에서는 동사에 여러가지의 분사가 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동사로서 형용사의 체를 유함을 운함이라》고 설명하고있다. 그리하여 현재분사 《간》, 미래분사 《갈》, 과거분사 《간》, 과거의 현재분사 《가든》, 과거의 미래분사 《갈야든》, 과거의 과거분사 《갓든》, 대과거의 현재분사 《갓섯는》, 대과거의 미래분사 《갓섯슬》, 대과거의 과거분사 《갓섯든》 등 동사의 변화가 다양하다고 서술하면서 이러한 분사의 조성도 조동사에 의한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유길준은 동사의 변화에 명사와 형용사화가 있다고 하면서 형용사화한 동사를 분사라고 하였는데 그것을 조동사와 결부시켜 보지는 않았다.

품사분류에서 의의를 가지는것은 둘째로, 형동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것이다.

김규식의 《대한문법》에서는 형용사와 구별하여 형동사를 설정하였다. 이것은 동사의 규정형을 넘두에 둔것으로서 최광옥과 유길준의 《대한문전》들에서는 《형용사화한 동사》로 보고 《분사》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형동사로 인정하든 분사로 처리하든 조선어의 민족적특성을 논하는데서는 일정한 가치가 있는 문법적처리라고 할수 있다.

품사분류에서 의의를 가지는것은 셋째로,

토와 관련한 문법적론의가 진행된것이다.

김규식은 명사의 격변화를 주장하면서 주격, 소유격, 목적격의 격변화만을 인정하고 나머지를 후사로 처리하였으나 최광옥은《명사의 후에 부하여 기 상하사의 관계를 시하는 자》를 후사라고 하면서 모든 격토를 다 여기에 포함시켰다.

한편 유길준은 접속사를 설정하고 그것을《정체, 련체, 순체, 반체》로 나눈 다음 명사에 붙는것은 정체접속사와 련체접속사에 소속시키고 동사에 붙는것은 순체접속사와 반체접속사에 소속시켰다.

토와 관련한 견해에서 주목되는것은 주시경의 견해이다. 그는《국어문법》에서 토를 단어로 보고 그것이 문장에서 첨가되는 자리에 따라《것, 잇, 꺾》의 세가지로 나누었고《말의 소리》의《씨난의 틀》에서는《것, 잇, 꺾(꺾)》을《임, 엇, 움》의《몸씨》와 구별하여《토씨》라고 하면서 우리 말의 교착접사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불러오던《토》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였다.

토를 하나의《기》로 보면서도 그것을《몸씨》즉 자립적단어와 구별되는《토씨》즉 보조적단어로 인정한《것》,《잇》,《꺾》은 오늘날의 격토, 접속토, 종결토 등 위치토에 해당하는것인데 그것은 대체로 문장속에서 차지하는 단어의 위치와 그 기능만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한것이였다.

김희상은《초등국어어전》에서 토를 단어로 보면서 그것을 묶어 하나의 품사로 설정하고 조토, 종지토, 감탄토의 세가지로 구분하였다. 특히 여기서 종지토를 평술, 의문, 공동, 명령으로 구분하였는데 이것은 오늘날 문법에서 종결토를 서술, 의문, 권유, 명령의 네가지로 구분한것과 차이가 없다.

이처럼 이 시기 국어학연구는 언어학의 성과를 충분히 고려한 기초우에서 근대적 방법론을 도입함으로써 근대적국어학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그후 일제의 민족어말살책동에 맞서 조선의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한《조선어학회》회원들의 투쟁에서 중요한 이론적기초로 되였다.